

멈출 수 없는 일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3:27

베로니카의 은혜, 나의 은혜! 지난밤 ‘들림’의 은혜(믿음), ‘놓임’의 은혜(구원), ‘누림’의 은혜(평강)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따름’의 은혜(소명)입니다. 예수의 이름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놓임받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놓임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3: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26절의 ‘그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구경하는 이들입니다. 27절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27절의 여인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힘써 달려가야 할 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召命: calling, vocation)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 중 하나가 바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베로니카였습니다. 전에 예수께서 베로니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4) 주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베로니카는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당신을 떠나라는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과의 접촉을 경험한 뒤, 그 은혜를 맛본 뒤, 여인은 그 접촉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접촉을 넓혀갔고, 높여갔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멈출 수 없는 일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다 했던 제자들은 그 길에 없었습니다. 버리지 못한 ‘자리’ 욕심 때문에 칼을 휘두르다 모두 저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멈출 수 없는 일을 발견했는가? 나는 지금 멈출 수 없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지고 따라갑니다! (26-)

[누가복음 23: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여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중 자꾸 쓰러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로마 군인들이 곁에 있던 사람 중에 힘 좀 쓰겠다 싶은 사람을 붙들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라 함은 아프리카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 것이 아닙니다. 붙들여 지워 따르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했습니다.(마 27:32)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어떤 십자가를 지우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미요,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훗날 시몬의 가족 전부가 예수를 믿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봅니다. 마가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막 15:21)로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롬 16:13) 말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입니다. 삶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직분입니다. 직장입니다. 책임입니다. 그것을 고역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알고 감사히 받으면 복이 됩니다. 이것이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³⁰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창세기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시편 127: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전도서 3:22상]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디모데전서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4:2] 그리고 맑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의 뿌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에서 나왔다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은 사제나 목사만이 성직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다 성직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 말했습니다. 베버는 이것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정신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멍에를 고역으로 여기면 복이 달아납니다. 은총으로 여기면 마침내 복이 됩니다.

2. 울며 따라갑니다! (27-28)

[누가복음 23:27,28]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³⁰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베로니카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무엇을 인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그를 위하여’라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울음입니다. 우리가 울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재건하기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30절) 세리처럼 나의 죄를 인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가족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 건강한, 복된 삶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e pray, and He works.

[예레미야 33:1-3]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²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³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³²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³³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6: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누가복음 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에스더 4: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느헤미야 1: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시편 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⁶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로마서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3. 전하며 따라갑니다! (29-31)

[누가복음 23:29-31]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³⁰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³¹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전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기도하는 삶,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31절)

[이사야 52: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전도서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에스겔 3:17-19]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¹⁸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¹⁹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롬 3:9,19)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